

불교 소식 실시간 전하며 여론 형성

변화하는 IT환경 속 불교계 언론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언론이다. 불교계 IT 환경변화로 교계 언론지형을 바꿔 놨다.

1995년 불교계 최초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출범한 '부다피아'의 경우 2005년 전면 개편을 하면서 현대불교신문의 인터넷판인 '붓다뉴스'를 독자들에게 서비스했다. 전자서점과 뉴스를 기반으로 한 '부다피아'는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사진, PDF파일 등에 대한 정보검색 및 동영상·오디오 법문·강의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여기에 <대중불교> 등 20여 불교잡지 보기, 7만여 장의 사찰·문화재 사진, 인물사진 서비스, 고서 열람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사이버 갤러리 운영과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 신행 및 수행 상담, E-book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었다.

1999년 창립한 불교정보센터는 2002년 불교포커스를 출범했고, 불교신문·법보신문·주간불교 등 주요 주간지들도 잇달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간지들의 홈페이지 오픈은 주간신문의 한계를 넘어 일간 또는 실시간 체제로 뉴스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뉴스 활성화로 2007년 이후 현재 불교계에는 불교닷컴·미디어붓다·우리불교·불교플러스 등의 언론들도 연이어 만들어졌다.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보기, 다시보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불교TV는 지난해 보도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인 'BTN NEWS'를 개설하기도 했다. 또한 대다수의 불교 언론들은 모바일용 홈페이지 역시 제작·운영하고 있다.

이런 교계 언론의 변화의 특징은 속보 시스템 이외에도 직접적인 대중들의 여론을 댓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방적 기사 콘텐츠의 제공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불교최초 포털 '부다피아'

주요 주간신문들 실시간 서비스

인터넷 언론들 2000년대 개설돼

내일 있는 콘텐츠 채우기 '속제'

이에 대해 신회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인터넷 언론의 출범은 기존 불교계 주간신문이 하지 못한 아이템들을 기사화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며 "무엇보다 독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가져왔고, 전문화된 기사 글쓰기가 아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기고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다변화하는 IT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영상과 오디오 등을 넘나드는 크로스미디어적 취재 기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 기자로 활동했던 유권준 동국대 홍보팀장은 "사람들이 정보를 소비하는 플랫폼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무엇보다 기존 언론들에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SNS



주요 불교계 언론사 홈페이지 첫 화면 모습들. 2000년대 이후 생겨난 불교계 언론 인터넷 판은 실시간 속보 이외에도 독자들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교계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유 팀장은 "현재 대중들은 미디어에 대해 크게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의 도구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대중들은 정확

한 사실에 근거한 기사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불교계 언론들은 내일 있는 기사 콘텐츠들로 지면과 웹 공간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 주요 언론 사이트

- 현대불교 (www.hyunbulnews.com)
 - 불교신문 (www.bulgyo21.com)
 - 법보신문 (www.beopbo.com)
 - 주간불교 (www.bulgyonews.co.kr)
 - 한국불교 (www.kbulgyonews.com)
 - 금강신문 (www.gggn.com)
 - 밀교신문 (www.milgyonews.net)
 - 우리불교 (www.wooribulgyo.com)
 - 불교방송 (www.bbsi.co.kr)
 - 불교TV (www.btn.co.kr)
 - 불교포커스 (www.bulgyofocus.net)
 - 미디어 붓다 (www.mediaibuddha.net)
 - 불교닷컴 (www.bulgyo21.com)
 - 불교플러스 (www.bulgyonews.kr)
 - 불교저널 (www.buddhismjournal.com)
- (순서는 무순)

명상, 불교음악 접목한 인터넷 방송국 '눈길'

주요 인터넷 불교방송 어떤 것들이 있나

인터넷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생겨난 것이 인터넷 방송들이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기존 종합 방송과 달리 특정 분야의 콘텐츠들로 특화된 인터넷 방송은 불교계도 존재하고 있다.

불교계 인터넷 방송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지난 2007년 5월 초에 개국한 인터넷 명상방송 '유나(www.una.or.kr)'다. 개국 1년만에 포털사이트 집계 순위에서 인터넷 방송부문 2위까지 기록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다.

영어의 당신 'You'와 '나'가 만나 이름 붙여진 유나는 그 이름부터 불교의 불이사상, 화엄사상을 근간에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유나'의 목적은 마음공부를 전문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인지 정묵 스님의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장현갑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김재진 시인, 전현수 정신과 의사, 고요한 소리 등 마음 수행 전문가와 단체들이 유나 방송을 꾸려나가고 있다.

현재 유나 방송을 듣는 인구가 국내 및 브라질·오스트리아·미국·일본·캐나다·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34개국이며 회원만 4만 5000여 명에 이른다.

'부다TV(www.buddhatv.com)'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TV방송이다. 1999년 세계최초 불교 전문 인터넷 TV로 출발한 '붓다TV'는 개국 당시 달라이라 마와의 대담을 인터넷을 통해 현장 생중계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국 이래 '부다TV'는 일반 불교신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 왔다. 현재 다양한 불교계 행사 영상과 스님 법문, 동영상 강좌, 사찰 영상 등을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부다TV'를 설립한 경우 스님(구룡사 회주)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인은 이제 하나이며, 이는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일불제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부다TV는 전세계 모든 인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류평화와 공존의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음악을 중심으로 방송하는 '불교인터넷음악방송국(www.bulmusic.com, 이하 불뮤직닷컴)'도 주목할 만한 불교 인터넷 방송이다.

유나방송- 불교 대표 명상방송

부다TV- 동영상 법문 등 제공

불뮤직닷컴- 불교음악 생방송

태고종 불심사 주지 성종 스님이 운영하는 '불뮤직닷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찬불가요, 명상음악, 염불, 성현 말씀으로 이뤄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매주 화요일만 방송을 쉰다. 이밖에도 사아비 법담, 신행상담실, 불교 교리 자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단점이다. 성종 스님은 "찬불가를 비롯한 각종 불교음악과 인터넷방송에도 우리 불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불뮤직닷컴'을 개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나가고자 한다"며 "부다TV 방송을 통해 누리꾼과 불자들이 보시행과 자리아타를 실천해 해인(海印)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BBS, 문자서비스 7개월만에 1만회원

불교방송, '오늘의 부처님 말씀' 불교신문 자체 팟캐스트 운영

시대 변화에 따라 불교계 미디어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통한 부대사업으로 불변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BBS 불교방송의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서비스'다.

BBS 불교방송이 지난 3월 15일 출시한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서비스'의 유료 회원이 7개월만인 10월 17일 현재 1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1만 불자의 아침에는 향기로운 부처님 법문으로 열어 드리는 새로운 서비스다보니 불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 특히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 동창, 도반 등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주위 분들에게 법보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서비스 본연의 취지를 더욱 살려 주면서 회원의 증가세도 높였다고 평가된다. 현재 등록자의 삼분의 일 가량이 법보시를 받고 있는 점이 이를 시사한다.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 서비스는 라디오, TV 전범에 이은 제 3의 전범 매체로 조급적 자리 잡고 있으며, 스마트폰 확산 속도와 함께 더 새롭고 파급력 높은 매체로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BBS는 문자 서비스의 호응에 힘입어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힐링 레터를 추가로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영문 서비스, 다양한 콘텐츠, 교계 소식 등을 삽입해 불자들

의 마음공부와 함께 신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서비스'는 '부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여세요! 삶이 편안하고 향기로우시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년 365일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서비스로 요금도 하루 108원, 월 3,240원으로 저렴하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 1661-6108 또는 불교방송 홈페이지 (www.bbsi.c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불교신문은 팟캐스트 '공보리 팟'을 통해 교계 동향을 전하고 있으며, BTN불교TV도 농어촌살리기 사업, 부디스트채널과 기사 협약 등을 통해 불변을 홍보하고 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불교방송 '오늘의 부처님 말씀' 문자서비스 약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불교방송



불교명상 인터넷 방송인 '유나'를 찾은 청취자들이 운영자인 정묵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유나방송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분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정맥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언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진신대사 촉진, 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반바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골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랑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랑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래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